

‘불교계 학회’ 도태나 발전이나 기로

2011년 잼스 시행... 불교계 나몰라라, 학진 지원·평가 단절 위기

불교계 한 학회는 학회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운영위원회가 있으나 자주 모이기도 어렵고 회의도 형식적이다. 학회 회원 200여 명 가운데 회비를 내는 사람은 고작 20여 명. 학회장의 회주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이하 학진) 지원금 등으로 어렵게 연명하고 있다. 발표자를 찾기도 어려워 사전심사 없이 발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진 등재후보지인 학회지도 마찬가지. 학술지 발간 시기와 논문 심사서류 등 갖춰야 할 것이 많지만 학진 심사를 즈음해 반박 고생하면 된다는 생각이 체계적인 학회 운영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11월 18일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논평하던 이승택 교수(경북대)가 난데없이 불교학계의 과감한 통폐합을 주장한 것은 파격적 학회 운영을 지향한 것으로 이해된다.

임 교수는 “불교학계가 <불교학보> <한국불교학> <불교학연구> <불교연구> <보조사상> <간산학보> <한국선학> <인도철학> 등 다양한 학회를 감당해 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열악한 국내 불교학계 현실에 비해 해외 학회 수준이 높고 통폐합을 주장하는 이가 나올만하다. 하지만 이제는 주먹구구식 학회 운영마저 어렵게 됐다. 학진이 최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및 학술지평가를 위해 ‘잼스(JAMS,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운용에 나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커다란 변화의 물결 앞에 불교학계는 효율적 학회 운영으로 환골탈태하거나, 도태되거나 하는 선택만이 남았다.

◇학회 운영 및 연구자 정보 전산화

KCI는 학술정보 제공 및 국내 학술지 질적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논문 인용지수, 피인용지수 등을 논문 편수와 함께 산정하게 된다. 잼스는 학회 홈페이지·학술지 발행·학술대회 관리 등 회원관리 →논문투고 →논문심사 →전자출판 →KCI 제출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한 학회업무 지원 시스템이다. 학진 등재후보지 이상을 발간하는 1600여 학회를 대상으로 2011년 본격 시

행을 앞두고 있다.

잼스가 시행되면 회원관리는 물론 회비 납부 내역까지도 학진에 공개된다. 논문투고와 심사도 전산화돼 형식적 처리는 불가능하다. 특히 심사위원의 특정인에 대한 심사 성향 등도 알 수 있어 선심성 내지 무성의한 평가까지도 기록이 남는다. 학술대회도 인터넷을 통해 발표신청과 논문제출, 논문접수가 일원화된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유명인용색인 DB와 연계해 학문의 국제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기존 학진 연구자 등록 정보 등과 연계한 학회 인력풀도 운영돼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 인력수급에도 승용이 트일 전망이다. 학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초래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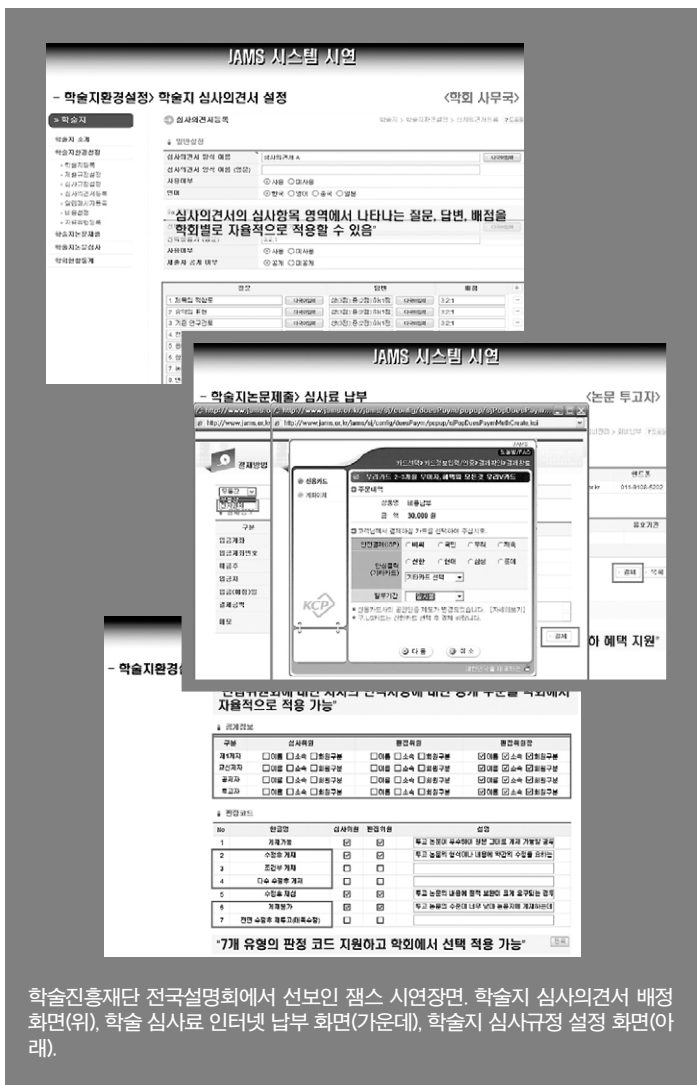
학진 지식정보센터 정진호 팀장(지식화산팀)은 “잼스 등 KCI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면 연구분야별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은 물론 학회 정보화 기반을 마련해 국내 학문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가 수립된다”며 “국내 학술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불교학계 관심조차 없어 큰일

학진은 9월 22일 총대회를 시작으로 10월 7일까지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등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불교학계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이정수·이기운 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 소수였다.

마지막 설명회가 끝난 지 한 달 남은 11월 10일 현재, 불교학계 관계자 중 잼스에 대해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학진 사업은 연구비 지원은 물론 연구자와 학회가 연구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장치다. 학진의 학술단체지원 사업은 한해 96억원. 불교학계의 열악한 환경 속에 학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참여는 바로 불교학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진호 팀장은 “2011년 이후 등재 학술지의 내용평가를 KCI시스템의 한국형 인용지수(Kor-Factor)로 대체하는 등 앞으로 등재학술지 선정 및 평가에 KCI 통계지표가 크게 반영될 것”이라 말해 등재학술지 선정을 준비하는 대다수 불교학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술진흥재단 전국설명회에서 선보인 잼스 시연장면. 학술지 심사요건서 배경 화면(위), 학술 심사료 인터넷 납부 화면(가운데), 학술지 심사규정 설정 화면(아래).

한 불교학자는 “학진 설명회에 불교학계 참가가 저조한 것은 그만큼 폐쇄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학회 관리 효율성 제고해야

잼스 도입 소식을 들은 연구자들은 “주먹구구식 학회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는 반응이다. 연구자 개인이나 학회가 자체 관리하던 업적 등이 KCI 통합시스템에 집중되면서, “연구자와 학회 모두 일종의 ‘자기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도 나온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몇몇 연구원들은 “불교문화연구원이 아닌 학교차원에서 시스템 전담자를 뒤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교문화연구원이 교직원연구기관인 것도 아니고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대다수 불교학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적을 두지 않은 학회의 경우 자력갱생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승택 교수의 주장처럼 학회를 통합해 내실을 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불교학계의 다양한 학회들이 저마다 창립취지를 갖고 작아도 제 목소리를 내는 마당에 좋은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이에 대해 학진의 잼스 도입을 계기로 학회들을 종합 관리할 별도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연구자는 “학회 운영 경험이나 풍부한 연구자들이 학진 관련 업무와 함께 학진 사업 수주에 관한 컨설팅 등을 맡아 학회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잼스 본격 도입을 3년여 남겨둔 지금, 불교학계의 선택에 불교학계의 미래가 달렸다.

조동섭 기자 celtana@buddhapia.com

“논문 질 국제화 여부 결정”

김용휘 교수 “많이 읽고 인용되면 좋은 논문”

KCI 통합시스템으로 전산화된 연구성과는 다국어로 제공돼 학문의 국제화를 앞당길 전망이다. 국내 학술단체의 국제화를 준비하는 국내 학회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지원으로 4월 출범한 국제학술지협의회(회장 문용린)가 대표적 예다. 국제학술지협의회는 외국어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국내 80여 개 학회 등 학술단체들이 상호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로 도약하는 데에 힘쓰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학문의 국제화는 좋은 논문을 얼마나 많이 해외에 소개하는냐에 달려있습니다.”

국제학술지협의회(회장 문용린) 국제분야 IT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휘 교수(세종대·사신)는 연구논문의 질이 국제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과거 학문의 국제화는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뜻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연구자는 논문의 제목, 요약문 등 기본적인 정보만 영어로 병기하되 무엇보다 가장 쉽고 편한 언어로 양질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 및 연구소 등 학술단체의

국제화 지원도 논문 번역을 지원하는 등 연구자가 좋은 논문을 쓰는데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합니다.” 좋은 논문은 어떤 논문일까? 김용휘 교수는 “논문의 좋고 나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고 인용했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KCI 인용지수의 경우 연구자 개인 뿐 아니라 학술단체의 관리 수준 측정에도 반영된다. 김 교수는 “많이 읽히기 위해서는 인터넷 노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 등 접근을 제한한 학회 홈페이지를 누구나 접근해 학술논문을 볼 수 있도록 오픈 액세스(Open Access) 방식으로 바꾸고,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기초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것 등이 인터넷 노출을 늘리는 방법이다.

김용휘 교수는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광고와 동일하다”며 “현재 00미디어 등 일부 정보제공 업체와 제휴해 학술논문을 폐쇄된 공간에 가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략적 키워드 사용을 통해 서치엔진 노출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학계의 경우 영문 표기에 사용될 용어 통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불교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



국제화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꼭 말라 합니다.”

김용휘 교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국제화된 용어”라며 “불교학계 등 한국 학술단체들이 독창성·주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계를 보세요. 국내 의학수준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자 이제는 영어를 고집하지 않는 분위기에 속해 국제학술대회도 열립니다.”

김 교수는 “불교학 관련 용어 통일과 국제적 선점을 위해 위키백과(www.wikipedia.org) 등 온라인에서 부지런히 불교 용어를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학 연구 인력 양성 시급”

불교학연구회서 이종표 교수 주장

“불교학 연구의 가장 큰 장애는 연구인력 부족이다.”

종교관향 등으로 인해 불사에 대한 교계 관심이 높을 때 불교학계에도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종표 교수(전남대는 11월 8일 열린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근현대 한국 불교철학의 성과와 전망”을 발표한 이 교수는 불교철학 연구의 문제점을 △연구인력 부족

△연구대상 편중 △연구성과 공유 부족 △기초연구 부족으로 정리했다. 연구인력 부족은 종립대를 제외한 일반 사립대 철학과에 불교 전공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표 교수는 “불교학 전공자들이 불교철학의 의의를 인식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성과 공유와 기초연구 부족에 대해서는 불교용어의 대중화된 통일과 전문연구의 기반이 될 색인 및 사전류의 보완 등을 제시했다.

조동섭 기자

진각논문발표회

진각종 교육원서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은)은 11월 14일 통리원에서 제10회 진각논문발표회를 병행했다.

행사는 △여래상에 관한 회당심인의 불교사상 연구(이경택) △불교와 진각종의 참회사상에 관한 연구(한진희) △대사파와 무위산파의 불교사상 수용태도에 관한 고찰(장우진) △비발라미트라와 삼에논쟁(박운진) △염불수행의 원리와 방법(김주경) △원시불교의 참회방식과 원리(김필섭)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조동섭 기자

육조사 현웅스님의 禪心으로 본 聖經 강연

[11월 27일부터 시작]

20여년간 서양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禪 불교를 가르치다 온 현웅스님께서 聖經을 직감합니다.



선원장 현웅 스님
1967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68년 사비계를 받았다. 71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원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년간 전국의 제법 선원에서 경봉, 성철, 구산, 전강 스님을 모시고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1986년 미국 시애틀에 돈오선원을 창건한 은사스님의 유지를 이어 미국 버클리 육조사를 통해 해외포교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울 육조사를 창건하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성경의 뜻 바로 알면 종교적 다툼은 사라져 버린다.
虛心者 福來... 곧, 마음이 가난하면 天國이 너 안에 있다.

佛經도 바로 보지 못하면 佛을 등지고,
聖經도 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뚫을 등지는 미신 신앙이 됩니다.

이 마음이 禪이며, 道이며, 眞理이며, 빈 마음 곧 가난한 마음입니다.

종교 편향화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조말 일제 식민지하의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마침내 타국의 소속국이 되어 슬픈 민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리는 모든종교의 근본입니다. 다만 그 설명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각종교의 방향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어야 하고, 다툼이 오면 그 다툼을 그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란 말만 들으면 그 언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엔 믿는 이에따라 천지 현격입니다.

<2008년 11월 27일부터 2달간>

- ◆일 시 : 매주목요일 저녁 7시 ~ 8시 30분까지
- ◆장 소 : 서울 육조사 禪房
- ◆참가자 : 출 재가자와 他 종교를 가리지 않음, 성인의 뜻을 깨닫고져 하신분에게 다 열려 있음

- ◆동참비 10만원 (예약을 요함)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 (예금주 : 육조사)
- ◆육조사 TEL 02)925-0408

카페 cafe.daum.net/yukjosa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알

림

歸依三密하옵고

이 時代의 佛敎學, 儒敎學, 道敎學에 최고의 강백이신 원조覺性 큰 스님께서 주석 하시는 釜山 華嚴寺(전강원)에서 전강원생 스님들을 모시오니 經典研究에 뜻있는 스님들 중 20분을 선착순으로 募集합니다.

- 접수기간 : 2008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 자격 : 강원 대교 졸업자, 중강실력자, 및 동등한자 비구, 비구니스님
- 법 략 : 20년 이상 (중단에서 중징계 및 사회법범자 제외)
- 강의장소 : 부산 화엄사
- 강의경전 : 唯識 三十誦, 八識規矩, 楞嚴經 (정맥소 한 것)
- 수 강 료 : 무 료
- 구비서류 : 조계종 재직 증명서 1통 / 대교졸업 증명서 1통
수행이력서 1통 / 사진(반명함판) 1매
- 수업일자 : 2009년 1월 13일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후 3시 ~ 6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5-1번지 천마빌딩 905호
- 전 화 : 02)735-1053, 018-242-7070

※ 12월 4일까지 통지서 발송 (통지후 임회비 일심만원) / 국민은행 390401-04-043930

전 강원 입승 범경